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LA한국문화원 www.kccla.org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6-714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16.8.2.(화)	담당자	Tammy Chung 323-936-3015	

<크로스오버 앙상블 "예락"의 음악이야기>개최

“젊은 음악인들의 열정의 무대: 예락의 음악이야기”



- ▶ 공연명 : 2016년 공연작품 공모전 「2016 ARI Project」
<크로스오버 앙상블 "예락"의 음악이야기>
(Crossover Ensemble YERAK's Music Concert)
- ▶ 일시 : 2016. 8. 10.(수) 19:30
- ▶ 공연 장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 주최 : LA한국문화원, 크로스오버 앙상블 "예락"(대표 오승훈)
- ▶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
- ▶ 첨부자료 : 공연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 ▶ 공연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5 공연담당 Tammy Chung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2016년 공연작품 공모전 「2016 Ari Project」 그 일곱번째 무대로 크로스오버 앙상블 "예락"(대표 오승훈)과 함께하는 <크로스오버 앙상블 "예락"의 음악이야기> (Crossover Ensemble YERAK's Music Concert)을 8.10(수) 19:30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개최한다.

동양의 예와 서양의 즐거움이 만나 하나의 음악을 이룬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국악 앙상블 "예락(禮樂) [ye:rak]"의 5번째 정기공연이기도 한 이번공연은 <500>(한오백년)을 시작으로 <The Chase>, <Clouds>, <It's Only a memory>, <Arirang>(아리랑), <Any Ole Jelsalem>, <Papirosen>, <Librescu Tango>, <Hava Nagilah>, <Finale>, <골목길> 등 예락의 대표 창작곡들과 세계 각국의 민요 특히 올해에는 이스라엘 전통음악(클레즈머)들을 젊은 음악인의 시각에서 재 조명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한국, 일본, 미국, 브라질, 폴란드, 이스라엘 등 6개 국가, 6개 언어를 사용하는 "예락" 단원은 현재 김지웅(첼로), 린지 헨들리(키보드), 마테우스 폴리(기타), 피트 올란스키(베이스), 구스타보 불가크(클라리넷), 히로 나가노(드럼) 등이 활약하고 있으며, 스페셜 게스트로 한국에서 성연영(해금), 한재연(피리) 등이 이번 공연에 참여한다. 창작과 편곡은 오승훈 음악감독이 주도하고 있다.

김낙중 문화원장은 "미국내 다문화 현지 음악인들간의 다양한 음악적 교류를 통해 한국음악을 소개하고 한국음악이 국제 무대에서 사랑받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온 국악앙상블 "예락"의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한국음악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젊은 음악인들의 열정의 무대에 함께하셔서 부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오승훈 음악감독도 "이번 콘서트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각계 각층의 많은 사람들의 음악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관객 여러분께 최고의 감동과 정신적 풍요를 선사 해 드릴 것입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음악감독 오승훈 씨가 이끌고 있는 예락(禮樂)[ye:rak]은 LA의 다문화 음악인들로 조직되었으며, 해금, 피리, 장구 등 한국전통악기와 소리를 비롯하여 첼로, 기타, 키보드, 더블 베이스, 트럼펫, 클라리넷, 드럼 등 한국, 일본, 브라질, 폴란드, 아르헨티나, 미국의 다문화 현지 음악인들간의 다양한 음악적 교류를 통해 한국음악을 소개하고 한국음악이 세계적인 음악 장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공연의 관람 및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크로스오버 앙상블 "예락"의 음악이야기> 공연

-프로그램-

1. 500
2. The Chase
3. Clouds
4. It's only a memory
5. Arirang

Klezmer (클레즈머 / 이스라엘 전통음악)

6. Any Ole Jelsalem
7. Papirosen
8. Librescu Tango
9. Hava Nagilah

10. Finale

11. Korean Popular song 골목길(Gol-mok-gil)

*프로그램내용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음악감독 : 오승훈 / 무대감독 : 윤세종

연주자

김지웅(첼로), 린지 헨들리(키보드), 마테우스 폴리(기타), 피트 올란스키(베이스), 구스타보 불가크(클라리넷), 히로 나가노(드럼)

스페셜 게스트

성연영(해금), 한재연(피리)

예락(禮樂) [ye:rak] (Yerak Ensemble)

<Yerak Ensemble>은 미국비영리단체인 <YERAK>의 산하 연주 단체로 21세기 월드뮤직의 재창출에 도전하고 있으며, 한국적인 정서를 주축으로 다양한 음악을 흡수하여 세계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다국적 크로스오버 월드뮤직 앙상블이다. 한국, 일본, 미국, 브라질, 폴란드, 이스라엘 등 6개 국가, 6개 언어를 사용하는 Yerak은 기존의 크로스오버 월드뮤직 앙상블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함과 신선함 그리고 우수한 예술성 및 연주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미 주위의 많은 음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해금, 피리, 장구 등 한국전통악기와 소리를 비롯하여 첼로, 기타, 키보드, 더블 베이스, 트럼펫, 클라리넷, 드럼 등 한국, 일본, 브라질, 폴란드, 아르헨티나, 미국의 다문화 현지 음악인들간의 다양한 음악적 교류를 통해 한국음악을 소개하고 한국음악이 세계적인 음악 장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끝/